

시나리오 작가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란?

미신불사(微臣不死)

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의 반대편에 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크리에이터의 반대편에는 속물(俗物)들이 있다. 즉 일상의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 있고, 집단과 시대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어른들이 있는 것이다.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속물이란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말한다. 한 편으로 속물들은 사회에 순응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람들 사이에 같이 끼이기를 열망한다. 다른 한 편으로 속물들은 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 호텔의 특실에 묵고 비행기의 일등석에 타며 식당에서는 회사의 대표나 장관과 나란히 앉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나보코프가 말한 두 가지는 모두 같은 욕망이다. 누군가의 뒤에 줄을 서려고 하는 욕망, 안전운전을 통해 승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전혀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속물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속물이라는 것은 문화의 허울들, 연출과 모임과 청탁과 광고와 술자리의 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어찌면 우리 또한 이런 부류인지도 모른다.

문화를 이야기하고 문화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크리에이터는 대단히 드물다. 크리에이터는 자기 내면의 절박한 열정 때문에 남들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일을 기획하고 감행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모두가 죽는다고 말하는 자리에 스스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저작도구인 '스토리 헬퍼'를 이용하여 창작한 새로운 소설작품 <지옥설계도>, 시나리오를 쓴 영화 <청년>.

크리에이터 에세이

상유십이척 미신불사(尙有十二隻 微臣不死)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고 미천한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이다. 죽을 자리를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의
목소리이며 진정한 창조의 의지를 아는 사람의 목소리이다.

이 크리에이터 앞에 서른 여섯 살, 시코쿠 1만 4천석의 영주 구루
시마 미치후사(来島通総) 씨가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시대의 고정관념으로 무장한 의기양양한 신사이다. 체제 순응주
의자이고 적당한 이상주의자이며 전통이라는 상투성을 사랑한다.

이 분은 상식에 따라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한다. 3백33척의 대
함대를 움직여 12척의 조선 수군을 공격해 들어간다. 그러나 언
제나 수비는 쉽고 공격은 어렵다. 공격자는 자신은 당연히 산다는
전제 아래 공격을 마치고 전공을 세운 뒤에 받을 보상을 생각한
다. 그래서 좀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기 어렵다. 그러나 방어자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생존이 최대의 보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

우리의 크리에이터는 다 떨어진 남자다. 그에게는 상사의 신뢰도
없고, 부하도 없고, 무기도 없다. 무고와 모함으로 모진 고문을
당해 몸도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아직 12척의 배
가 있고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황당한 소리를 한다. 크리에이터
는 울돌목 1.9미터 수심을 이용해서 3백33척의 함대를 분산시키
고 각개격파로 아수라처럼 싸운다. 12척의 돌격에 31척이 침몰되
고 93척이 대파된다. 1만 2천여 명이 죽는다. 우리의 구루시마 씨
도 전사한다.



시나리오를 쓴 게임 <길드워>.

이인화

소설가, 시나리오작가.